

상서류(尙書類) 문헌의 원류와 전개

『상서(尙書)』의 고주소(古注疏)와
신주소(新注疏)를 중심으로

김유미

윤즈정보개발 프로젝트 연구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haehwan@aks.ac.kr

I. 머리말

II. 중국 주요 상서류 문헌의 전래

III. 한국 주요 상서류 문헌의 전래

IV. 맺음말

I. 머리말

『상서(尙書)』는 동아시아 기록문화의 원류로서, 문자가 창제된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춘추시대에 이르러서 사관으로부터 공자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공자의 산정(刪定)을 거치면서, 『상서』는 동아시아 유학의 경전으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공자가 편찬한 『상서』는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형태와 내용상 꾸준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를 통일하기 위해 당대(唐代) 『상서정의(尙書正義)』가 관찬서(官撰書)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상서정의』를 토대로 하는 제가(諸家)들의 주해서(注解書)가 편찬되었는데, 이중 송대(宋代) 주희(朱熹)의 제자인 채침(蔡沈)의 『서집전(書集傳)』이 원대(元代)에 관학이 되어 추후 명대(明代) 『서전대전(書傳大全)』의 관찬서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동아시아 『상서』의 주요 주해서는 고주소(古注疏) 계열의 당대 『상서정의』·청대(清代) 『상서주소(尙書注疏)』와 신주소(新注疏) 계열의 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의 2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삼국통일을 전후로 당대 『상서정의』·고려후기 송대 『서집전』·조선시대에는 명대 『서전대전』과 청대 『상서주소』의 2체제가 모두 수용되어 국가 주도로 관찬서로서 간행·보급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에서도 『상서』의 주요 주해서는 고주소·신주소의 2체제로 이어져 왔으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의 『상서』 연구는 이러한 고주소·신주소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에 송대 주희를 신봉한 옛 관습을 답습하여, 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만을 번역·연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 중에서, 조선시대에는 명대 『서전대전』을 기준으로 『상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김유미의 선행연구인 「『상서』의 신주소로서, 한국본 『서전대전』 간인본들 간의 서지학적 이동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대 『서전대전』의 주해(注解)는 주희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대주(大注)와 송원(宋元) 제가(諸家)의 세주(細注)의 형태인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의 『상서』 연구는 대부분 대주만을 번역·연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김유미의 선행연구인

「국내 주요 상서류 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대 주희와 제자들이 편찬한 『서집전』이 당대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토대로 이루어졌기에, 고주소·신주소를 병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¹⁾ 또한 김유미의 선행연구인 「『상서』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 상서학(尙書學)이 송대 이후 고주소·신주소의 2체제로 전개되었기에, 한국의 2체제에 관한 상서학도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서』의 주요 주해서인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2체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에서의 시대별 양상을 거시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내 『상서』 연구가 신주소의 대주로만 전개되는 한계에서 극복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

II. 중국 주요 상서류 문헌의 전래

1. 당대(唐代) 이전의 상서류 문헌

『상서』는 문자가 창제되어 기록된 이후, 동아시아 최고(最古)의 공문서이다. 이러한 『상서』의 명칭은 한대(漢代)를 전후로 ‘서(書)’·‘상서(尙書)’·‘서경(書經)’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고대 문헌에서 역사 저작을 서(書)로 지칭하였기에, 이러한 일반적인 서(書)와 『상서(尙書)』의 서(書)는

1) 2013년 교육부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으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尙書正義1』의 해제에서, 김유미는 『尙書』에 관한 연구를 총체적으로 개괄하였다. 그리고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수용된 『尙書』의 주요 주해서로서 古注疏 계열과 新注疏 계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尙書』의 新注疏로서, 한국본 『書傳大全』 간인본들간의 서지학적 이동연구」에서는 新注疏 계열의 간인본들 간의 문자상 차이를 면밀히 비교하였다. 또한 「『尙書』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에서는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시대별 尙書類 문헌을 고찰하였는데, 宋代 이후에는 古注疏 계열과 新注疏 계열의 2체제로 구분되어 전개된 양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참고하여, 동아시아에서 『尙書』의 주요 주해서인 古注疏 계열과 新注疏 계열의 2체제 전개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증하도록 하겠다.(김유미, 「해제」 『尙書正義』(전통문화연구회, 2013); 김유미,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第70輯(2017); 김유미, 「『尙書』의 新注疏로서, 한국본 『書傳大全』 간인본들간의 서지학적 이동연구」, 『정신문화연구』 第150輯(2018); 김유미, 「『尙書』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 『아시아연구』 21권 4호(2018)).

엄밀히 구분된다. 즉, 현존하는 『상서』의 유래는 서(書)로서, 제반의 역사 관련 문헌의 서(書)에서 점차 『상서』의 서(書)로 의미가 한정되어, 요순시대에서부터 하대(夏代)·상대(商代)·주대(周代)의 사적에 대한 사관의 기록들이 춘추시대 공자에게 전해져 산정된 것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서』는 공자에서 문도(門徒)와 공문가(孔門家)로 전수되어, 전국시대 맹자는 『서(書)』로 정치관을, 순자는 『서(書)』로 경학관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들 외에도 제자백가를 통하여 두루 인용이 되어, 『논어』·『맹자』·『순자』 등에도 『서(書)』가 자주 인용되었다.

그러나 진시황(秦始皇)의 분서(焚書)·협서율(挾書律)과 항우(項羽)의 함양궁(咸陽宮) 방화로 인해 대부분의 문헌이 소실되면서, 이때에 『상서』도 역시 유실되었다. 그리하여 서한대(西漢代) 중앙을 중심으로 소실된 문헌을 복원하고자 문헌의 정리와 주석을 위주로 하는 훈고학(訓詁學)이 행해졌는데, 당시 노력의 결과로, 금문경(今文經(이하 今文本)) 『상서』인 복생본(伏生本)과 고문경(古文經(이하 古文本)) 『상서』인 공씨가전본(孔氏家傳本)·공벽본(孔壁本)·하간헌왕본(河間獻王本)·중고문본(中古文本)·백량본(百兩本)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후 동한대(東漢代)에 금문본 『상서』는 구양본(歐陽本)과 대(大)·소(小) 하후본(夏侯本)으로 발전하였고, 고문본(古文本) 『상서』인 두림칠서본(杜林漆書本)은 가규(賈逵)의 훈(訓)·마융(馬融)의 전(傳)·정현(鄭玄)의 주(注)로 인하여 유행하였다. 또한 광무제(光武帝)를 전후로 참위서(讖緯書)의 등장으로, 금문본·고문본·위서가 병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희평(熹平) 연간에 경문(經文)을 통일하고자, 낙양(洛陽) 태학(太學)에 희평석경(熹平石經)[漢石經·一體石經]을 세웠는데, 『상서』의 저본은 구양본으로 하되 대·소하후 두 가문의 이문(異文)을 주(注)로 밝혀 교감기(校勘記)로 새겨 놓았다.

이후 위대(魏代) 정시(正始) 연간에 삼체(三體)[고문·소전·예서]로써 정시석경(正始石經)[魏石經·三體石經]을 이루었는데, 『상서』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서진(西晉)을 전후로 정현의 『고문상서』와 왕숙(王肅)의 『고문상서』의 대립이 있었고, 서진 말기에 영가(永嘉)의 난으로 비부(秘府)에 소장되던 구양(歐陽)과 대소하후(大小夏侯) 삼가(三家)의 『금문상서』와 일서(逸書) 16편을 포함한 『고문상서』가 망실되었다. 이때에 단지 29편의 고문상서가 남아, 남북조시대에 여전히 성행하였다.

그 후 동진(東晉) 원제(元帝) 때에,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賾)이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이 포함된 『고문상서』를 헌상하였다. 이 본은 『금문상서』 28편을 33편으로 늘리고, 당시의 문헌에서 문구를 맞추어 『고문상서』 25편을 만들어, 유향(劉向)이 말한 고문(古文) 58편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 매색이 헌상한 본은 학관에 세워져, 남북조시대에 널리 유전되었다.

그리고 당대 『오경정의』 중 『상서정의』의 저본으로 사용되어 경학사의 정종(正宗)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후 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청대 『상서주소』에 이르기까지 통행되는 정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본은 이후에 송대의 오역(吳棫)과 주희·원대의 오징(吳澄)·명대의 매작(梅鷟)·청대의 염약거(閔若璩)와 혜동(惠棟) 등이 위작이라고 논증하여, ‘위공전고문상서(僞孔傳古文尙書)’로 칭하게 되었다²⁾

2. 당대(唐代) 이후의 상서류 문헌

1) 당대(唐代)

당대 오경정의는 전대(前代)로부터 이어진 남북학(南北學) 경의(經義)의 대립을 절충하되, 수대(隋代)의 학풍을 계승하여 남학(南學)을 위주로 하여 경학을 통일하였다. 이때에 전대인 한대의 훈고학과 위진남북조시대의 의소학(義疏學)의 영향으로 편찬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학의 대립과 통일의 과정에서, 『상서』도 역시 남북조시대에 북조는 정현이 전한 『상서』를, 남조는 매색이 전한 『공전고문상서』를 주로 정하여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북조 말에 이르러 유작(劉焯)·유현(劉炫)³⁾이 남조의 비감(費彪)의 『상서의소(尙書義疏)』를 숭상하여 소(疏)를 하고, 육덕명(陸德明)도 『경전석문(經典釋文)』 「음의(音義)」를 지어, 점차 남조의 『공전고문상서』가 북조의 정현의 것보다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당태종의 명으로 공영달(孔穎達)·안사고(顏師古) 등이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였는데, 이 중 『상서정의』는 실질적으로는 왕덕소(王德韶)·이자운(李子雲) 등이 매색의 공전고문상서본을 표준 저본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대의 의소(義疏) 형식을 채택하여,

2) 『尙書正義』 해제』 인용,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3) 『尙書正義』孔穎達의 序에 “隋나라 초기에 古文尙書가 비로소 河朔에 유입되었는데, 그 正義를 지은 이들은 蔡大寶·巢猗·費彪·顧彪·劉焯·劉炫 등이었다.”라고 하였다.

경(經)에 대해서 주(注)를 하고 또다시 주에 대해서 소(疏)를 하는 식으로 편찬하였다. 이때에 대체로 주는 남학으로, 소는 남북학으로 병용하되, 주를 남학으로 하면 가능한 소를 북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여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오경정의에 속하는 『상서정의』도 역시 이러한 체제로 편찬되었다.

이후에 오경정의의 편찬·수정이 모두 완료되자, 고종(高宗)은 영희(永徽) 4년 천하에 반포하고, 잇달아 명경과(明經科) 고시 시행을 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현본 등 전래되던 상서본들이 점차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편 천보(天寶) 연간 현종(玄宗)이 위포(衛包)에게 이것을 가지고 금자체(今字體)인 해서체(楷書體)로 고쳐 쓰도록 명하여 금자본을 이루었는데, 당시 난해한 문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문자들이 다르게 쓰여졌다. 그러나 이후에 문종(文宗)이 개성(開成) 2년 정담(鄭覃) 등의 건의로 구경(九經)으로 석경(石經)을 제작하여 장안의 국자감에 세울 때에 여기에 새겨졌는데, 이른바 개성석경(당석경)이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서안(西安) 비림(碑林) 중에 온전히 보존되어, 탁본(拓本)·번각본(飜刻本) 등이 세상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상서』의 본으로 개성 석경이 채택되어, 보편적인 『상서』 판본으로서 시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까지도 전래된 구본(舊本)의 『상서』의 본들은 점차로 멸실되었으나, 당대 공영달의 『상서정의』는 북송에도 공인된 주해서로 계승되었다. 이후 북송 단공(端拱) 2년(988년) 『상서정의』의 단행본(單行本)이 판각되었고, 남송 순희(淳熙) 연간 양절동로차염사(兩浙東路茶鹽司)에서 공전(孔傳)[注]·공소(孔疏)의 합각본인 『상서주소』가 이루어졌다.

당말로부터 오대에는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후당 장흥(長興) 3년(932)에는 당석경 문자를 기준으로, 구경(실제 12종, 『역(易)』·『서(書)』·『시(詩)』·『삼례(三禮)』·『춘추삼전(春秋三傳)』·『효경(孝經)』·『논어(論語)』·『이아(爾雅)』)이 처음으로 목판에 인쇄되었다. 이후로는 경서가 점차 대량으로 간행·유통되기 시작하였다.⁴⁾

4) 『尙書正義1 해제』 인용,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 오대감본(五代監本)

오대(五代)의 후당(後唐) 명종(明宗) 장흥(長興) 3년(932년)에 풍도(馮道) 등이 국자감에서 유가 경전 편찬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후진(後晉)·후한(後漢)을 거쳐 후주(後周) 광순(廣順) 3년(953년)에 구경(실제 12종) 판각본 전부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것이 오대국자감본 구경으로, 당시 국자감에서는 서경석경본(西京石經本)을 만들어 이에 의거하여 구경을 교정하여 간행·반포하고 잡본(雜本)의 사용은 금지하였다.

이 오대의 판각본은 후한(後漢) 건우(乾祐, 948년) 이전에는 단지 『역』·『서』·『시』·『예기』·『춘추삼전』 5종만이 완성되었고, 건우 때에 그 나머지인 두 예(禮)와 두 전(傳)을 이어서 판각하여, 후주 광순 3년(953년)에 구경 판각본과 『오경문자(五經文字)』·『구경자양(九經字樣)』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진(晉) 천복(天福) 때에 판각한 것은 동판(銅版)으로 되어 있다.⁵⁾ 이에 판각된 것은 모두 경주본(經注本, 經과 注를 합하여 판각한 것)으로, 『상서』는 공전고문상서본으로 판각하였다. 그리고 전민(田敏)이 이 구경을 헌상한 해(953년)에, 촉상(蜀相) 모소예(母昭裔)도 성도(成都)에서 구경을 판각한 후에 ‘맹촉대자구경(孟蜀大字九經)’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후주 현덕(顯德) 2년(955년)에 전민이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의 편찬을 완성하였는데, 그 중 『상서석문(尚書釋文)』은 곽충노(郭忠恕)가 복정(覆定)한 고문본에서 유래하였다. 이외에도 후촉의 모소예(母昭裔)가 구경과 촉석경(蜀石經)도 판각하였다고 전해진다.⁶⁾

2) 송원대(宋元代)

(1) 송대(宋代)

북송대에는 전대로부터 공인된 주해서인 관찬본으로서 『상서정의』가 국자감을 중심으로 간행·유통되었다. 이후 남송대에도 『상서정의』는 여전히 이어졌는데, 당시 주희의 제자 채침이 사가본으로서 『서집전』을 편찬하여 위상이 높아지면서 원대(元代)에 관학으로 공인되었다. 이로 인해, 『상서』의 공인된 주요 주해서는 전대로부터 전해진 고주소 계통인

5) 王國維는 五代에 經을 판각한 數目이 당석경과 서로 동일하여, 晉代와 漢代 사이에 『효경』·『논어』·『이아』 3종이 판각되었다고 하였다.

6) 劉起鈺, 『尚書與群經版本綜述』, 『史學史研究』第三期(北京師範大學歷史學院史學研究所, 1982), 49-50쪽; 羅樹寶 著, 趙賢珠 譯, 『중국책의 역사』(다른 생각, 2008), 97-104쪽.

『상서정의』·『상서주소』와 송대 이후로 편찬된 신주소 계통인 『서집전』·『서전대전』의 2체제로 재편되었다.⁷⁾

① 고주소 계열

송대 경서는 관각본(官刻本)·방각본(坊刻本)·가각본(家刻本) 등으로 간행·보급되었다. 당시 송대에서 간행한 경(經)의 수는 당대(唐代)의 구경이었는데 실제로는 12종으로, 이후에 『맹자』가 추가되어 '십삼경'으로 칭해졌다. 그리고 명대(明代)에 이르러 십삼경주소·십삼경고주를 모아서 간행하면서 십삼경주소가 정식으로 확립되었다. 그런데 남송 이전에는 주와 소가 각기 단독의 형태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남송대 광종(光宗) 조돈(趙惇) 소희(紹熙) 연간 황당(黃唐)이 경문(經文)과 주소(注疏)를 처음으로 합간하여, 경부(經部)의 총서로서 십삼삼경주소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십행본(十行本)[九經三傳沿革例]으로 이루어져, 원명대(元明代)에도 이어져서 최고(最古)의 판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십행본은 명대 정덕(正德) 연간에도 존재하여, 정덕본이라고도 한다.⁸⁾

② 북송

관각본은 국자감본(國子監本)·안무사본(按撫使本)·차염사본(茶鹽司本)·조사본(漕司本)·전운사사본(轉運使司本)·공사고본(公使庫本) 및 각 주·군·현의 학교와 서원 등의 간인본들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 송대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활동한 곳은 국자감으로, 오대(五代)의 구경과 『경전석문』에 주소와 정의를 붙이고 『맹자』를 더하여 십삼경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북송 전기로부터 국자감은 책을 판각하는 책임을 맡아 각지에서 임의대로 판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기에, 판각하고자 하면 국자감의 추천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희녕(熙寧, 1068년)에 금령이 해제되어, 이후 관(官)·사(私)·방각(坊刻) 모두 성행하였다.

북송 초기에 국자감에는 오대의 구판(舊版)이 남아 있었으나, 4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수요를 위하여 이 구판을 사용해서 인쇄 반포하고, 민간에 있는 사본(寫本)도 수집하였다. 그리고 천보(天寶)연간에 이르러 현덕(顯德) 연간의 『상서석문』은 고문(古文)으로 되어

7) 『尙書正義1 해제』,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8) 『尙書正義1 해제』,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있기에, 천보 5년 진악(陳鄂)으로 하여금 국자감에서 해서(楷書)인 금자(金字)로 『천보신정상서석문(天寶新定尙書釋文)』을 개수(改修)해서 간행하여 편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예고정자(隸古定字)가 적지 않게 바뀌어지고 삭제되었다. 이후 단공(端拱) 9년(988년)에는 당대 공영달의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교감하는 작업이 완성되었고, 2년에 이르러 『상서정의』의 판각이 행해졌으며, 순화(淳化) 5년(994년)에 오경정(五經)이 전부 완성되었다.⁹⁾

㉔ 남송

남송 초기에는 임안(臨安)의 국자감에서 직접 판각하기보다는, 강남(江南)의 각 주(州)에서 군경(群經)을 새겨 만들었다. 소흥(紹興) 9년(1139년)과 21년(1151년)에는 주·군에서 옛 국자감에서 반포한 각 경(經)의 선본을 찾아 교감하고 대조하여 누판(鑄版)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경 12종의 경주본(經注本)과 『맹자』가 모두 회복되어 완전해졌다. 또한 소흥(紹興) 연간에는 각 주(州)에서 각 경(經)의 정의(正義)를 새겨 만들었고, 15년(1145년)에 이르러서는 임안부(臨安府)에서 각 경의 의소(義疏)가 없는 판을 새기게 하였다. 이에 12종의 정의본(正義本)이 완전해졌다. 이후 이러한 군경은 국자감에 속해져 남송감본을 이루었는데, 감본에 오류가 있어 가정(嘉定) 14년(1221년)에 국자감에서 경적(經籍)을 교정하게 하였다. 이때에 모거정(毛居正)이 책임지고 육경(六經)·삼전(三傳)을 취하여 상세히 참고해서 교정하여, 10년간 『역』·『서』·『시』·『주례』의 사경(四經)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자감에는 경주본(經注本)·단소본(單疏本)·단경정문본(單經正文本)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된다.¹⁰⁾

그리고 사적으로 판각한 사각본(私刻本)으로는 세채당(世綵堂) 요형중(廖瑩中)의 구경(九經)·악가씨(岳珂氏)의 『간정구경삼전연혁례(刊正九經三傳沿革例)』 등이 알려져 있고, 서방(書坊)에서 판각한 방각본으로는 항주(杭州)·건양(建陽) 등의 본이 있다. 이때에 간행된 군경의 대다수는 경주본이었는데, 현재 악씨(岳氏)의 ‘상태본(上台本)’이 선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악씨는 23종의 판본을 근거하였다고 하나, 이외에도

9) 劉起釭(1982), 앞의 논문, 50-55쪽; 羅樹寶(2008), 앞의 책, 104-119쪽.

10) 후에 毛氏의 眼病으로 인하여 나머지 經들은 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 四經의 교감이 훌륭하다고 칭해진다.

감(監)·촉(蜀)·경(京)·항(杭) 등의 본과 담(潭)·무(撫)·민(閩)·촉(蜀) 등의 본이 있었다. 그리고 23종 중에서 3종의 주소본(注疏本) 외에 20종은 경주소(經注本)로 여겨진다. 그러나 당시 경주소 이외에 또한 주소본과 단경본(單經本)이 있었다.

이중 주소본은 악씨가 근거한 월중구주소(越中舊本注疏)·건본유음석주소(建本有音釋注疏)·촉주소(蜀注疏) 모두 3본이 있다. 그 중 월중구주소는 순희(淳熙) 연간으로부터 소희(紹熙) 연간에 양절동로차염사에서 판각한 본으로, 이른바 송대 팔행본(八行本)이라고 하여 주소합각본(注疏合刻本)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월중(越中)에서 판각한 주소본으로는 『역』·『서』·『시』·『주례』·『예기』·『춘추』의 육경과 『논어』·『맹자』의 2종이 있다. 그 후에 석음(釋音)이 붙은 주소본이 있었는데, 악씨가 언급한 「음석(音釋)」의 건본(建本)도 역시 송대 십행본(十行本)이다. 그 판본은 원대에서 명대에 이르러 보수(補修)되었는데, 완원(阮元)의 「십삼경주소교감기」에서 근거한 십행본은 이 본에 속하는 것이 많다. 이외에 일찍이 건안(建安) 위현위(魏縣尉)에서 교감하여 간행한 『부석문상서주소(附釋文尚書注疏)』가 있는데, 이는 송대 구행본(九行本)에 해당되어 전해지는 본으로 “건본(建本)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해진다. 그리고 단경본(單經本)은 악씨가 언급한 것을 볼 때, 감본(監本) 외에 촉(蜀)·건(建)·무(婺)·엄각지(嚴各地)에서 일찍이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② 신주소 계열

당대 『상서정의』 편찬 시에 저본이 된 매색의 공전고문상서본에 관한 위작설이 거론되었다. 당대 육덕명의 『경전석문』에서부터 북송·남송의 교체기 오역(吳棫)의 『서비전(書裨傳)』 등에서 위작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 정초(鄭樵)·홍매(洪邁)·조공무(晁公武) 등도 의심을 하였는데, 남송대에 주희가 이러한 오역 등의 주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작설을 논증하였다. 이후에는 주희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제자 채침이 『서집전』을 편찬하여, 원대에 공인되었다.¹²⁾

가정(嘉定) 연간에 편찬된 채침의 『서집전』은 1종의 단행(單行) 『서집

11) 劉起釭(1982), 앞의 논문, 50-55쪽; 羅樹實(2008), 앞의 책, 104-119쪽.

12) 『尚書正義』 해제 인용,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전』의 간인본 출현이 있고서, 순호(淳祐) 연간에 상요(上饒)에서 이 책의 간인본이 있었다. 총괄하자면, 남송에는 이미 여러 종의 집전본의 간인본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 명대에 이르러 이 1종의 단행본이 편집되고 간행되어, 오경의 회간본(匯刊本) 중으로 들어갔다.¹³⁾

채침의 제자인 황자연(黃自然)의 말에 근거하면, 1200년 즈음 주희가 사망한지 30년 만에 『서집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송시대에는 아직 관학이 되지 못하였으나, 이미 크게 영향을 미쳐 광범위하게 유행되어, 그 간인본이 매우 많았다. 현존하는 간인본으로는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강서상요군학여우룡관각본(江西上饒郡學呂遇龍官刻本)], 간행연대는 순우(淳祐) 10년(1250년)으로 추정,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서집전』(남송간대자본(南宋刊大字本, 간행연대는 1127년이라고 주장하나 정황상 1230년 이후로 추정되나 간행연대가 불분명, 대만 태북(台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잔권송각본(殘卷宋刻本, 중국 북경문물국) 등이 있다.

이중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朱文公訂正門人蔡九峰書集傳)』이 현재 가장 선본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여우룡(呂遇龍)이 순우 7년에 채항(蔡杭)이 송이종(宋理宗)에게 진상한 『서집전』[경진본(經進本)]을 근거로 판각한 것이다. 남송시대에는 간인본이 매우 많아서 관각·가각·방각의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은 정교한 송대 관각본에 속한다. 또한 여우룡이 판각하기 전에 이미 『서집전』의 판각본이 적지 않았으므로, 『주문공정정문인채구봉서집전』은 채씨 『서집전』이 진상된 후의 첫 번째 간인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2) 원대

원대에는 전시대로부터 이어진 고주소인 『상서정의』와 신주소인 『서집전』이 공존하였는데, 이때에 『상서정의』 등 한당대(漢唐代)의 주소를 중시하는 고의파(古義派)와 『서집전』을 중시하는 시의파(時義派)로 나뉘었다.

한편 오대(五代)와 양송(兩宋)에서 판각한 유가 경전은 이미 적어져서,

13) 劉起釔(1982), 앞의 논문, 553쪽.

14) 王春林, 『『書集傳』版本源流』, 『中國哲學史』第2期(中國人民大學哲學系, 2010), 101-104쪽.

『상서』는 일찍이 오대간본(五代刊本)이 없어졌다. 단지 소수의 몇 종류인 송간본만 전해 내려와, 이로 인하여 원대와 명대 이후의 여러 주요 서목에 기재되어 있는 전본들에 더해진 저록(著錄)에 근거할 수는 있으나, 그 수목(數目)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대 이후에는 군경(群經) 회각본(匯刻本)과 『서집전』의 단각본(單刻本)으로 대별되고, 이러한 『상서』의 판본은 정문본(正文本)·경주본(經注本)·단소본(單疏本)·주소본(注疏本)·집전본(集傳本)·청집한주본부위왕숙주본(淸輯漢注本附魏王肅注本)·음의급문학교주본(音義及文學校注本)의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⁵⁾

① 고주소 계열

고주소 계열의 주요 판본으로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문본(正文本)[單經本·白文本]으로 진대(晉代)에 출현한 『공전고문상서』의 경문만이 판각된 본과 부음훈본(附音訓本)이 있고, 둘째는 경주본(經注本)[單注本·古注本·經傳本·單孔傳本]으로 『상서』 정문(正文) 아래에 새긴 공안국의 전(傳)이 있는 본이 있으며, 셋째는 단소본(單疏本)[單刻本·『尙書正義』]으로 공소(孔疏)는 새겼으나 경문(經文)·공전(孔傳)과 합각하지 않은 본이 있고, 넷째는 주소본(注疏本)[經傳疏本·『尙書注疏』]으로 경문·한진대(漢晉代)의 전주(傳注)·당송대의 정의(正義)의 합각본이 있다.¹⁶⁾

② 신주소 계열

신주소 계열의 주요 판본으로는 송대 채침의 『서집전』 본으로 초기에는 단각본의 형태를 하고 널리 유행하였다. 이후 원대 연우(延祐) 연간에 『서집전』이 관학으로 되면서 간인본이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원본(元本)의 특징으로는 추계우(鄒季友)의 「서집전음석(書集傳音釋)」이 첨부되어 후대 『서집전』의 간인본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과, 「주자설서강령(朱子說書綱領)」과 「상서찬도(尙書纂圖)」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3) 명청대(明清代)

(1) 명대

15) 劉起鈺(1982), 앞의 논문, 55쪽.

16) 劉起鈺(1982), 위의 논문, 55쪽.

17) 王春林(2010), 앞의 논문, 101-104쪽.

① 고주소 계열

정덕본(正德本)을 근간으로 명대 세종(世宗) 가정(嘉靖) 연간에 이원양(李元陽)이 민(閩)에서 민본(閩本)[十行本重刻]을 간행하였고, 이 민본을 토대로 명대 신종(神宗) 만력(萬曆) 연간에 감본(監本)[閩本重刻]을 칙판(勅版)하였다. 그리고 감본을 바탕으로 명대 사종(思宗) 숭정(崇禎) 연간에 모진(毛晉)이 숭정본급고각판(崇禎本汲古閣版) 또는 모본(毛本)[毛氏版, 監本重刻]을 판각하였으며, 모본을 근거로 청대 고종(高宗) 건륭(乾隆) 연간에 건륭칙판(乾隆勅版) 또는 전본(殿本)[武英殿本, 毛本重刻]을 간행하였다.¹⁸⁾

② 신주소 계열

명대 『서집전』의 간인본은 원본(元本)에 의거한 것이 많았다. 첫째로는 추계우음석본(鄒季友音釋本)이 더욱 광범위하게 간행된 것으로, 명대 정통 12년 내부각본(內府刻本)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둘째는 명대간본(明代刊本)인 『서전대전』[『서경대전』]의 대량 간행에 영향을 지대하게 준 것이다.

이러한 『서집전』은 이미 원대에 관학이 되었으나, 채전(蔡傳)만을 위주로 과거시험의 준칙으로 정한 것은 『서전대전』 편찬 이후로 비롯되었다. 그런데 『서전대전』 이전에도 『서전회선(書傳會選)』이 관학이 되어 『서집전』을 위주로 하였으나, 『서집전』만을 온전히 종주(宗主)로 삼지는 않았다.¹⁹⁾

『서전대전』 6권이 나뉘어졌는데, 대지(大旨)는 본래 진력(陳櫟)의 『상서집전찬소(尙書集傳纂疏)』와 진사개(陳師凱)의 『상서채전방통(尙書蔡傳旁通)』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서전대전』이 과거시험교재가 되자, 방사(坊肆)에서 이 본에 의지하여 간행을 많이 하였다.

18) 「尙書正義1 해제」,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19) 明成祖는 永樂 12년 칙명으로, 胡廣(1370-1418) 등으로 하여금 三部大全인 『四書大全』·『五經大全』·『性理大全』을 纂修하게 하였다. 그런데 洪武연간 字音·字體·字義 등을 정밀한 고증의 과정을 통해 『書傳會選』을 편찬한 것과는 다르게, 永樂연간에는 졸속으로 『五經大全』을 편수하여, 후대에 표절시비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김유미(2018), 앞의 논문(a), 83-116쪽.)

(2) 청대

① 고주소 계열

전대로부터 전해진 간인본들이 수많은 복각(覆刻)으로 인해, 문자를 판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청대 가경(嘉慶) 21년 강서(江西) 남창(南昌)에서 완원(阮元)이 남송대의 십항본 십일경(十一經)과 북송대(北宋代)의 단소본(單疎本) 『의례(儀禮)』·『이아(爾雅)』 이경(二經)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간인본들을 참고해서 교정하여,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와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주해(注解)에 「십삼경교감기(十三經校勘記)」를 덧붙여 간행하였는데, 완본(阮(刻)本)이라고 하여 후대의 선본이 되었다.²⁰⁾ 그런데 당시 완원은 충분한 수장본과 문객이 있었으나, 하남으로의 전근으로 직접 교감을 못하게 되어, 교서(校書)하는 사람들이 판본(版本)과 교감기(校勘記)에 소홀히 하여, 원하던 형태의 선본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십삼경주소교감기」는 당시 여러 학자들이 각자 맡아서 작성한 것으로, 완원은 이들을 총괄해서 재교감하고서 시비만을 정하였다.²¹⁾

② 신주소 계열

청대 『서집전』의 간인본이 더욱 많아졌는데, 그 중 단행본이 많다. 대부분의 간인본에는 「상서서(尙書序)」·「추계우음석(鄒季友音釋)」·「서소서(書小序)」가 첨부되었고, 소수의 간인본에는 「주자설서강령(朱子說書綱領)」과 「상서찬도(尙書纂圖)」가 부가되었다. 총괄해보자면, 청본(淸本)은 정문(正文) 6권에 채침의 「자서(自序)」가 더해진 단행본이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많은 청본 『서집전』 중에서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된 『서경집전(書經集傳)』의 영향이 가장 지대하여, 당시 학자들이 인용한 『서집전』의 대부분은 『서경집전』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서경집전』은 단순히 판본상으로만 말하자면, 선본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단지 『서집전』 6권의 정문을 수록하고, 앞에 채침의 「자서」가 있고, 오자는 비교적 많아서 정교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²²⁾

20) 『尙書正義1 해제』 인용, 김유미(2018), 앞의 논문(b), 225-262쪽.

21) 葉德輝 著, 朴徹庠 譯, 『書林清話』(푸른역사, 2011), 455-457쪽.

22) 王春林(2010), 앞의 논문, 104-105쪽.

III. 한국 주요 상서류 문헌의 전래

한국에서 『상서』를 포함하는 경학의 주해서들은 주로 중국이나 국내의 연구서가 간행·유통되었다. 그중 국가에서는 당시의 정치·경제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공인한 주해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과거시험의 교재로 삼고 간행·보급하였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시대별 4대 주해서인 당대 『상서정의』·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청대 『상서주소』가 한국에 수용되어, 삼국통일을 전후로는 당대 『상서정의』·고려후기에는 송대 『서집전』·조선시대에는 명대 『서전대전』과 청대 『상서주소』의 2체제가 국가 주도로 관찬서로서 간행·유통되었다.

1. 삼국시대

한국은 삼국시대 이전으로부터 이미 『상서』가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유가경전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제도·관리등용제도²⁴⁾가 완성되어²⁵⁾, 『상서』를 포함한 유가경전이 국가 차원에서

23) 陳泰夏 등 국내외 일부의 학자들은, 商(殷)이 韓國의 先祖에 해당하는 東夷族의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辛司可, 「韓知名學(者稱漢字並非中國文字, 韓國人祖先發明漢字)」, 《環球時報》, 2011년 4월 21일자). 만일 사실이라면, 箕子 시기를 전후로 『尙書』가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史記』 「秦始皇本紀」 「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州, 僊人居之, 請得齊戒與男女求之, 於是, 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太平御覽』 「始皇帝」 「方士徐福等, 入海求神藥.」에는, 秦始皇이 徐福 일행을 파견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傳說에는 徐福 일행이 최종목적지인 日本에 가기 전, 韓國의 濟州道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 韓國에도 『尙書』가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김유미(2017), 앞의 논문, 148-149쪽.)

그리고 『尙書正義』 「周官」 「成王既伐東夷, 肅慎來賀.」라고 經文에 쓰여 있고, “『傳』 海東諸夷駒麗、扶餘、馱貌之屬, 武王克商, 皆通道焉.”라고 孔傳에 쓰여 있어, 周代 成王시기에 東夷族을 정벌하였는데, 이들이 高句麗·扶餘·馱貌의 족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周代 東夷族의 존재와 더불어, 孔傳이 작성된 시대에 이미 삼국시대 이전의 국가인 扶餘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尙書』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4) 통일신라시대 讀書三品科를 시행하였는데, 五經[『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三史·諸子百가에 통달한 자는 등급을 초월하여 등용하였다. 당시 唐나라의 영향으로, 『尙書』의 표준교재로서 『尙書正義』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김유미(2017), 앞의 논문, 150쪽.)

25) 『三國史記』 新羅本紀 惠恭王 1年 6月 丙子; 三國史記 新羅本紀 元聖王 4년 乙丑.

존송되어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당대에는 『상서정의』를 포함하는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관찬서로서 편찬하고, 명경과(明經科) 고시를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으로, 남북국시대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입당(入堂) 유학생이 크게 늘었고, 이 중에 당나라에 임용된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당의 명경과 고시 과목인 대경(大經)〔『예기』·『춘추좌씨전』·중경(中經)〔『시경』·『주례』·『의례』〕·소경(小經)〔『역경』·『상서』·『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을 포함하는 당의 교육제도가 삼국통일을 전후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국통일을 전후로 한 오경정의의 수용으로, 『상서』 역시 당대의 『상서정의』가 교재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당시 『상서』의 위상은 1934년 경상북도 경주시 건곡면 금장리 석장사 터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²⁶⁾과 『삼국사기』·『삼국유사』에 있는 설총(薛聰)의 방언²⁷⁾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상서』·『상서정의』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당시 상서류 문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²⁸⁾

● 고주소 계열

『삼국사기』에는 원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춘추』·『상서』·『상서정의』·『맹자』의 내용을 비교한 내용이 실려 있다.²⁹⁾ 여기서 ‘정의(正義)’는 공영달의 소(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서정의』 「이훈(伊訓)」 “『正義』成湯既沒，其歲卽大甲元年.”의 공소(孔疏)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서정의』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26) 삼국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壬申誓記石을 통해, 당시 『尙書』가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壬申誓記石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비석으로, 552년(眞興王 13) 또는 612년(眞平王 34)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석은 길이 약 30cm, 너비는 윗부분이 12.5cm이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다섯 줄로 74자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비문 안에는 『詩』·『書』·『禮』·『春秋左傳』을 차례로 습득할 것을, 맹세하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尙書』를 중시하여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壬申誓記石』,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27) 『三國史記』列傳 薛聰 “以方言讀九經，訓導後生，至今學者宗之.”; 『三國遺事』 「元曉不羈」 “以方言通會華夷方俗物名，訓解六經文學，至今海東業明經者，傳受不絕.” 종래에는薛聰이 吏讀文을 창제하였다고 여겨졌으나, 薛聰 이전부터 사용되었다고 밝혀졌다.(정인승, 「吏讀起原의 再考察」, 『이희승선생송수기념논총』(일조각, 1957), 643-652쪽.)

28) 김유미(2017), 앞의 논문, 148-151쪽.

29) 『新羅本紀』 南解 次次雄.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비서성(秘書省(監))이나 전교서(典校署(寺))에서 관판본(官板本)을 주로 담당하여, 지방관서에 명하여 관각한 책판(冊板)을 진상하게 하였으며, 비각(秘閣)·서적포(書籍鋪)·서적점(書籍店)에서 그것을 간행·보급하게 하였다. 또한 지방관서는 중앙 관청의 명령 외에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책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송대에는 고주소(古注疏)인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중심으로 팔경(八經)이 더해져서 십삼경주소가 완성되었고, 남송대에는 신주소(新注疏)인 주희와 제자들이 편찬한 주자집주가 출현하였다. 이로 인해, 『상서』도 고주소인 『상서정의』[송대 『상서주소』]와 신주소인 『서집전』의 2체제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으로, 고려전기 오경정의의 중심에서 고려말기 주자집주의 수용으로, 『상서』 역시 고주소인 『상서정의』와 신주소인 『서집전』이 공존하는 2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민왕대 1370년(공민왕 19) 6월 명나라 황제가 아들들을 책봉하고 과거 시행 준칙을 담은 조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書, 蔡氏傳·古注疏.”라고 기록되어 있어, 『상서』는 신주소인 『서집전』과 고주소인 『상서정의』를 모두 채택하되, 채씨전을 먼저 기록하여 『서집전』을 『상서정의』에 비해 더욱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³¹⁾ 이는 원대로부터 고주소인 『상서정의』를 중시하는 파와 신주소인 『서집전』을 중시하는 파로 나뉘었던 역사적 사실과도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기에 간행된 상서류 문헌『상서정의』·『서집전』이 현존하지 않아서, 간행·유통된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대신

30) 『三國史記』가 실제 기록된 시기가 고려시대인 것을 고려해 보면, 고려시대 金富軾 등의 지식인층간에 『尙書正義』의 인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高麗史』世家 恭愍王 19年 6月 24日.

一, 鄉試·會試, 文字程式. 第一場. 試五經義, 各試本經一道. 不拘舊格, 惟務經旨通暢, 限五百字以上.

易, 程氏·朱氏·注古注疏, 書, 蔡氏傳·古注疏, 詩, 朱氏傳·古注疏, 春秋, 左氏·公羊·穀梁·胡氏·張洽

傳, 禮記, 古注疏, 四書疑一道, 限三百字以上. 第二場. 試禮·樂論一道, 限三百字以上, 詔·誥·表·箋內,

科一道. 第三場. 試經·史·時務策一道, 惟務直述, 不尙文藻, 限一千字以上. 試三場, 後十日, 面試. 騎觀其馳驟便捷. 射觀其中數多寡. 書觀其筆畫端楷. 算觀其乘除明白. 律聽其講解詳審. 律用見行律令.

『고려사』 태조(太祖) 세가 26년 4월조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년 동월 조에 실린,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³²⁾를 통해 고려초부터 『상서』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광종(光宗)의 과거제도³³⁾를 통해 『상서정의』를 간행·보급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사』·『고려사절요』 등에 『상서』·『상서정의』·『서집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당시 상서류 문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① 고주소 계열

『고려사』·『고려사절요』에는 『상서정의』를 포함한 오경정의의 간행과 보급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당시 『상서정의』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㉔ 정종대(靖宗代) 1045년(정종 11) 비서성(秘書省)에서 새로 간행한 『예기정의(禮記正義)』 70질과 『모시정의(毛詩正義)』 40질을 바치자, 왕이 어서각(御書閣)에 한 질씩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다.³⁴⁾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경정의인 『모시정의』·『상서정의』·『주역정의』·『예기정의』·『춘추좌전정의』가 모두 하나의 세트로 간주된 것을 감안하면, 비록 여기에 『상서정의』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당시 궁내에 함께 소장된 것으로 사료된다.

㉕ 문종대(文宗代) 1056년(문종 10) 8월 서경유수(西京留守)가 비각(秘閣) 소장의 구경(九經) 등의 문헌을 반사(頒賜)하여 학원에 비치하기를 청하자, 유사(有司)에게 각 1본씩 인쇄하여 송부하라고 명하였다.³⁵⁾ 그리고 1063년(문종 17) 4월 태자에게 비각에 있는 구경 등의 문헌을 하사하였다.³⁶⁾

32) 현재 訓要十條의 내용은, 安鼎福의 東史綱目 등의 후대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33) 958년(光宗 9) 光宗은 국가 기반 확충과 왕권의 안정을 위하여, 後周에서 귀화한 翰林學士 雙冀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때 雙冀는 최초의 知貢舉(과거시험관)가 되었다. 그런데 雙冀의 고국인 後周에서는 廣順 3년(953년)에 이미 九經(실제 12종) 판각本 전부가 완성되었을 정도로, 五經正義를 중심으로 하는 古注疏가 前代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光宗代 과거제도의 교재로 五經正義에 포함되는 『尙書正義』가 간행·보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高麗史』 世家 靖宗 11年 4月 23日; 高麗史節要 世家 靖宗 靖宗 11年 4月 未詳日.

35) 『高麗史』 世家 文宗 10年 8月 未詳日.

그런데 동아시아 경학사에서 구경은 당대에 성립되었는데³⁷⁾, 당대 오경정의를 중심으로 점차 여러 경들이 더해져서 송대에 이르러 십삼경주소로 완성된 고주소의 과도기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당대에는 관찬서로서 오경정이가 국가에서 공인된 교재로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경과 고시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구경에 오경정이가 포함되어, 『상서정의』도 함께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㉔ 숙종대(肅宗代) 1101년(숙종 6) 1월 구경 등을 제작하여 대성(臺省)과 추밀원(樞密院)에 분사(分賜)하여 배치시켰다.³⁸⁾ 이 구경에도 오경정의에 속하는 『상서정의』도 포함되어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신주소 계열

『고려사』·『고려사절요』에는 서집전을 포함한 주자집주의 간행과

36) 『高麗史』 世家 文宗 17年 4月 4日.

37) 孔子가 刪定(刪削·整理·傳注)한 儒家 經典의 六經은 『詩』·『書』·『禮』·『樂』·『易』·『春秋』로, 그 중에 『樂』은 戰國 후기에 이미 失傳되었으며, 西漢代 武帝 때에는 『詩』·『書』·『禮』·『易』·『春秋』로 五經 博士를 세웠다. 그리고 東漢代에는 『孝經』과 『論語』가 더해져서 七經이 되었으며, 唐代에는 三禮(儀禮·周禮·禮記)와 三傳(左傳·公羊傳·穀梁傳)으로 나누어져서, 『易』·『書』·『詩』와 합해져 九經이 되었다. (何耿鏞著, 장영백·조관희·김애영·박덕교·전영숙 譯, 『經學概說』(청아출판사, 1992), 24쪽.) 그리고 唐文宗 開成 2년에, 『論語』·『孝經』·『爾雅』를 포함한 十二經을 각인한 開成石經이 세워졌다.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 『儒教 經典과 經學』(景仁文化社, 2002), 378쪽.) 뒤이어서 北宋理學家들은 孟子를 존송하여, 과거 시험에 포함하고 孔子墓에 함께 배향하였다. (전재성, 「四書 정립 과정에 관한 연구」, 『陽明學』 제16호(2006), 350-353쪽.) 그리고 南宋 朱熹는 『禮記』에서 『大學』·『中庸』 2篇을 취하여, 『論語』·『孟子』와 더불어 四書を 만들었다. 이때에 비로소 十三經이 이루어졌다. (何耿鏞(1992), 앞의 책, 25쪽.)

그런데 본래 十三經 중에서, 정식의 經은 『易』·『書』·『詩』·『周禮』·『儀禮』·『春秋』에 국한되었다. 『春秋左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은 傳이고, 『禮記』·『論語』·『孟子』·『孝經』·『爾雅』는 記에 해당하였다. 게다가 『孟子』는 宋代 이전에는 『荀子』와 더불어, 經類가 아닌 諸子類의 儒家類에 속하였다. 이때 傳은 聖人の 직접적 계승자가 經文을 해석한 것(聖인이 著作한 經의 뜻을 전하여 기술)이며, 記는 聖人の 후학들이 기록한 것을 의미하였다. (蔣伯潛·蔣祖怡(2002), 앞의 책, 17-19쪽.) 부연하면, 經은 聖인이 정한 것이고, 傳과 記는 제자들이 풀이하여 기술한 것이며, 제자들 간에 전수한 것을 說이라고 한다. (皮錫瑞 著, 李鴻鑑 譯, 『中國經學史』(同和出版社, 1984), 43쪽.)

한편 十三經 외에, 三經·四經·五經·六經·七經·九經·十經·十一經·十二經·十三經·十四經·十七經·二十一經 등이 있다. (林東錫, 『中國學術綱論』(高麗苑, 1986), 16-19쪽.)

38) 『高麗史』 世家 肅宗 6年 1月 6日.

보급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당시 『서집전』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㉓ 고려 말기 안향(安珦)이 1289년(충렬왕 15) 왕과 왕후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필사한 주자집주와 공자·주자의 화상(畫像)을 가지고 돌아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자학을 수용하면 서³⁹⁾, 기존의 당대 오경정의와 송대 주자집주가 병용되다가, 점차 주자집주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 특히 안향의 제자이면서 이제현(李齊賢)의 장인인 권부(權溥)의 건의로 사서집주(四書集註)가 간행되어⁴⁰⁾, 서집전을 포함한 주자집주가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말기 유학자 정몽주(鄭夢周) 역시 주자집주를 강설하였다고 되어 있어⁴¹⁾, 이로 볼 때 고려 말기에 이미 주자집주에 속하는 『서집전』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㉔ 공민왕대(恭愍王代) 1370년(공민왕 19) 6월 명나라 황제가 아들들을 책봉하고 과거 시행 준칙을 담은 조서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서』는 채씨전(蔡氏傳)·고주소(古注疏)를 채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채침의 『서집전』이 공영달의 『상서정의』보다 앞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로 『서집전』이 보다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말기 과거 시험 과목으로 신주(新注)·고주(古注)가 나란히 채택된 것으로 보아서, 고려시대 고주인 『상서정의』 체제에서 조선시대 신주인 『서집전』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양태라고 간주할 수 있다.⁴³⁾

39)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전에 이미 수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0) 『高麗史』 列傳 諸臣 權溥.

41) 『高麗史』 列傳 諸臣 鄭夢周.

42) 『高麗史』 世家 恭愍王 19年 6月 24日.

一, 鄉試·會試, 文字程式. 第一場, 試五經義, 各試本經一道. 不拘舊格, 惟務經旨通暢, 限五百字以上.

易, 程氏·朱氏·注古注疏, 書, 蔡氏傳·古注疏, 詩, 朱氏傳·古注疏, 春秋, 左氏·公羊·穀梁·胡氏·張洽

傳, 禮記, 古注疏, 四書疑一道, 限三百字以上. 第二場, 試禮·樂論一道, 限三百字以上, 詔·誥·表·箋內,

科一道. 第三場, 試經·史·時務策一道, 惟務直述, 不尚文藻, 限一千字以上. 試三場, 後十日, 面試. 騎觀其馳驟便捷. 射觀其中數多寡. 書觀其筆畫端楷. 算觀其乘除明白. 律聽其講解詳審. 律用見行律令.

43) 김유미(2017), 앞의 논문, 151-153쪽; 김유미(2018), 앞의 논문(a), 87-88쪽.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송유정책으로 유학과 관련된 전적이 전국적으로 간행되었다. 경서의 경우, 중앙관서를 중심으로 지방관서나 개인이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 명대에는 고주소인 당대 오경정의를 근간으로 팔경이 더해져서 송대에 완성된 십삼경주소와 신주소인 송대 주자집주가 계속 간행·유통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가주도로 신주소인 주자집주를 근간으로 제가의 설을 첨가한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이 관찬서로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이후 청대에는 고주소인 오경정의·십삼경주소와 신주소인 주자집주·사서오경대전이 병존하여 간행·유통되었다. 이로 인해, 『상서』도 고주소인 『상서정의』·『상서주소』와 신주소인 『서집전』·『서전대전』의 2체제가 공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전시대로부터 전해진 오경정의·주자집주와 더불어, 조선전기에는 사서오경대전·조선후기에는 십삼경주소가 간행·유통되어, 『상서』 역시 고주소인 『상서정의』·『상서주소』와 신주소인 『서집전』·『서전대전』이 모두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간행된 상서류 문헌은 방대하다. 특히 현존하는 상서류 문헌으로, 『서전대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주자학의 영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에 『상서』·『상서정의』·『서집전』·『서전대전』·『상서주소』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당시 상서류 문헌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① 고주소 계열

조선 전기 세종대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한 『서전대전』으로 인하여, 전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상서정의』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는 『상서정의』를 포함한 오경정의가 소장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간행·보급이 계속 이루어졌다.

㉞ 세종대(世宗代) 1423년(세종 5) 11월 예조에서 제사 소목(昭穆)에 대하여 『춘추정의』를 참고하여 아뢰었고⁴⁴⁾, 1440년(세종 22) 8월 집현전 부제학 김빈(金鎰) 등이 『예기정의』를 참고하여 상소하였다.⁴⁵⁾ 여기에서

오경정의 중 『춘추정의』·『예기정의』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상서정의』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㉔ 성종대(成宗代) 1470년(성종 1) 3월에 예조에서 세조(世祖)의 신주와 환조(桓祖)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에 대해, 오경정의 중 『춘추정의』를 참고하여 설명하였다.⁴⁶⁾ 그리고 1478년(성종 9) 8월 강희맹(姜希孟)이 자신의 부친이 유수로 있을 때에 조정에 알려져서 세종대 서울로 실어와, 당시 외전교서(外典校署)에 오경정의가 소장되어 있으니 보충하여 새겨서 널리 전하게 하기를 청하자, 윤허하였다.⁴⁷⁾ 이때에 강희맹이 진언한 내용에 의하면, 『예기』는 잔결(殘缺)이 많으나 다른 경은 그 판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대로부터 전해진 『상서정의』가 당시에 도 온전히 보존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㉕ 인조대(仁祖代) 1645년(인조 23) 5월에 홍문관이 상복의 예에 대해 『춘추정의』를 상고하여 올렸는데⁴⁸⁾, 여기서 당대 공영달의 소를 인용하고 있어, 오경정의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㉖ 숙종대(肅宗代) 1701년 (숙종 27) 10월에 집의 유명웅(俞命雄) 등이 남구만(南九萬) 등을 파직시켜 주기를 상소하면서 『춘추정의』를 언급하였고⁴⁹⁾, 동년 9월 최석정(崔錫鼎)의 상소문을 보면 공소(孔疏(唐代 孔穎達의 疏))에 대하여 아뢰었으며⁵⁰⁾, 1704년(숙종 30) 8월에 『사변록(思辨錄)』의 처리를 의논할 때에, 사변록 내에 십삼경주소 가운데 주자가 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며 근심할 것이 못된다고 아뢰었다.⁵¹⁾ 그런데 숙종대 십삼경주소는 청대 완원의 십삼경주소가 아닌, 송대 이후 주소가 합쳐진 본으로, 당대 오경정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오경정의에 속하는 『상서정의』도 함께 전해진 것으로 유추할 수

44) 『世宗實錄』 5년(1423) 11월 17일.

45) 『世宗實錄』 22년(1440) 8월 5일.

46) 『成宗實錄』 1년(1470) 3월 21일.

47) 『成宗實錄』 9년(1478) 8월 25일.

48) 『仁祖實錄』 23년(1645) 5월 6일.

49) 『肅宗實錄』 27년(1701) 10월 22일.

50) 『肅宗實錄』 27년(1701) 9월 2일.

51) 『肅宗實錄』 30년(1704) 8월 5일.

있다.

㉓ 정조대(正祖代) 1793년(정조 17) 12월에 내각과 홍문관이 첫 신일(辛日)에 자내는 기곡제(祈穀祭)에 대해 상고할 때에 공영달의 말을 언급하였고⁵²⁾, 동년 12월에도 예조가 시원임(時原任) 대신(大臣)과 문임(文任)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뢴 때에도 공영달의 말을 언급하여 아뢰었다.⁵³⁾

㉔ 순조대(純祖代) 1805년(순조 5) 2월에 홍문관에서 국조의 전례를 상고하여 아뢴 때에 당대 공영달의 소를 인용하였다.⁵⁴⁾ 『예기정의』를 포함하는 오경정의가 전래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㉕ 고종대(高宗代) 1866년(고종 3) 김상현(金尙鉉)이 십삼경주소가 홍문관의 등영각(登瀛閣)에 있음을 아뢰었고⁵⁵⁾, 1871년(高宗 8) 5월 연생전(延生殿)에 강관(講官) 강로(姜潞)등이 입시하여 『시전(詩傳)』을 진강하며 십삼경주소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⁵⁶⁾, 1872년(高宗 9) 8월에 자미당(紫薇堂)에 강관 조성교(趙性敎)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며 십삼경주소를 아뢰었다.⁵⁷⁾ 그리고 1874년(高宗 11) 11월에 희정당(熙政堂)에서 일강관(日講官) 허전(許傳)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일강하며 『모시정의(毛詩正義)』의 공소(孔疏)를 언급하였으며⁵⁸⁾, 영부사(領府事) 이유원(李裕元)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일강하며 공소를 아뢰었다.⁵⁹⁾ 뿐만 아니라 1901년(高宗 38) 8월에 김태제(金台濟)는 송시열(宋時烈)과 박세채(朴世采)의 말을 빌려 십삼경주소의 중요성을 아뢰고, 성균관 안에 교경당(校經堂)을 세워 정주학(程朱學)을 근간으로 한대(漢代) 주소를 취하고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⁶⁰⁾, 동년 12월에 김태제는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十三經註疏]·설문해자(說文解字)뿐

52) 『日省錄』 正祖 17년(1793) 12월 2일.

53) 『日省錄』 正祖 17년(1793) 12월 7일.

54) 『純祖實錄』 5년(1805) 2월 4일.

55) 『承政院日記』 高宗 3년(1866) 12월 7일.

56) 『承政院日記』 高宗 8년(1871) 5월 9일.

57) 『承政院日記』 高宗 9년(1872) 8월 24일.

58) 『承政院日記』 高宗 11년(1874) 11월 2일.

59) 『承政院日記』 高宗 11년(1874) 11월 20일.

60) 『承政院日記』 高宗 38년(1901) 8월 11일.

만 아니라 통용되는 영락(永樂) 연간의 4서·3경도 각판(刻板)과 활판(活板)의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아뢰며, 거듭 교경당 설치를 청하였다.⁶¹⁾

그런데 당시에는 청대 완원의 십삼경주소가 이미 편찬되어 간행되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십삼경주소는 완원이 편찬한 십삼경주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십삼경주소의 『상서주소』를 조정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두루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신주소 계열

고려 말기에 수용한 『서집전』은 세종대 이후로부터는 『서집전』 계통의 『서전대전』으로서 국가정책상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다양한 형태의 『서집전』과 『서전대전』으로 간행·보급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현재에도 많이 전해진다. 또한 『상서정의』·『서집전』·『상서주소』와 다르게, 『서전대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기에, 여기서는 주요 기록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앞서 『상서정의』의 전래를 이해하기 위해 오경정의의 간행·유통과정을 참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서전대전』만이 아닌 사서오경대전의 전반적인 간행·유통과정을 고찰하여 조선시대를 풍미한 신주소 계열의 위상을 가늠하고자 한다.

㉞ 태종대에는 1401년(태종 1) 1월에 경상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전백영(全伯英)이 사본의 『상서』를 올리는 등⁶²⁾ 전대의 『상서』가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1402년(太宗2) 5월에 권근(權近)에게 『상서』의 경문(經文)에 구두점을 찍어 올리라고 명하여⁶³⁾, 후대에 『상서』 구결(口訣)에 기준이 되었다. 또한 세종실록 1428년(세종 10) 윤 4월의 기록과 1433년 2월의 기록을 근거로, 태종의 명으로 권근이 『시경』·『상서』·『역경』에 토를 하고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을 지은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년 7월에는 내서사인(內書舍人) 이맹균(李孟畇)이 대자(大字)로 쓴 『채전상서(蔡傳尙書)』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⁶⁴⁾, 태종대에 크기와

61) 『承政院日記』 高宗 38년(1901) 12월 27일.

62) 『太宗實錄』 1년(1401) 1월 8일.

63) 『太宗實錄』 2년(1402) 5월 10일.

64) 『太宗實錄』 2년(1402) 7월 20일.

모양이 다른 『상서』 문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03년(태종 3) 2월 새로 주자소(왕실출판기관)를 설치하고, 예문관대제학 이직(李穡)·총제(摠制) 민무질(閔無疾)·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우대언(右代言) 이웅(李膺)으로 제조(提調)를 삼았으며, 내부(內府)와 대소 신료들에게 동철(銅鐵)을 내게 하였다.⁶⁵⁾ 그런데 『정조실록』에는 “太宗朝癸未, 以經筵古註詩書左傳爲本, 命李穡等, 鑄十萬字, 是爲癸未字.”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태종대 계미년 경연에 있는 고주본(古註本) 『시경』·『상서』·『좌전』을 자본(字本)으로 삼아 이직(李穡) 등에게 명하여 10만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계미자(癸未字)라고 설명하고 있다.⁶⁶⁾ 그런데 언급된 경서의 고주는 일반적으로 고주소인 『오경정의』를 지칭하기에, 당시에 『상서정의』가 계미자의 자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⁶⁷⁾

㉔ 세종대에는 1419년(세종 1) 12월에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裨)를 통해 사서오경대전을 수용하여⁶⁸⁾, 기존의 국가 표준 교재이면서 과거교재였던 공영달의 『상서정의』·채침의 『서집전』에서 『서전대전』으로 이행하는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였다.⁶⁹⁾ 그러나 본격적인 간행·보급은 1425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421년(세종 3) 9월 함길도 관찰사가 사서와 오경을 내려달라고 청한 소문(疏文)을 수락한 일은⁷⁰⁾, 기존에 전해오는 오경정의·주자집주를 언급한 것이거나, 새로 들어온 사서오경대전을 활자 등으로 소량 인쇄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423년(세종 5) 3월에 오경·사서를 각기 10부씩 성균관과 오부학당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고,⁷¹⁾ 1424년(세종 6) 2월 주자소에서 인쇄된 『대학대전』 50여 벌을 문신에게 나누어 주었다.⁷²⁾⁷³⁾ 이와 같은 사실로, 『서전대

65) 『太宗實錄』 3년(1403) 2월 13일.

66) 『正祖實錄』 18년(1794) 1월 24일.

67) 당시까지 상서정의를 비롯한 오경정의가 널리 간행·유통되어, 자형이 친숙하였기에 자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68) 『世宗實錄』 1년(1419) 12월 7일.

69) 국가적 차원에서는 1419년에 수용되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수용되어 간행·보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0) 『世宗實錄』 3년(1421) 9월 19일.

71) 『世宗實錄』 5년(1423) 3월 15일.

전』 역시 이미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량이 적어서 전국적으로 간행·보급되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425년(세종 7) 5월에 평안도 감사 김자지(金自知)가 중국에서 경서 44벌을 사오게 하여 44고을에 나누어 주게 하기를 청하자 허락한 일⁷⁴⁾은, 이 경서 44벌이 사서오경대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후 각도에 인쇄준비를 위임한 것으로 볼 때에 당시 사서오경대전을 매우 중시하여 간행·보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425년(세종 7) 10월에 『성리대전(性理大全)』·오경·사서 등을 인쇄하려고 하니, 인쇄할 종이를 충청도는 3천 첩(貼)·전라도는 4천 첩·경상도는 6천 첩을 만들어 진상하라고 충청·전라·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였다.⁷⁵⁾ 그런데 동년 11월 경상도 감사 하인(河演)이 『입학도설(入學圖說)』·『주역』·『시전』·『춘추』·『중용』·『대학』·『논어』·『효행록』·『전서천자문』·『대자천자문(大字千字文)』 등을 올려서, 이것을 성균관·교서관·사부학당에 나누어 주었는데⁷⁶⁾, 여기서 경서는 사서오경대전이 아닌 기존의 오경정이나 주자집주로 보인다.

1426년 11월(세종 8) 진헌사(進獻使)에 첨총제(僉摠制) 김시우(金時遇)를 통해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 1부 도합 1백 20권과 『통감강목(通鑑綱目)』 1부 도합 14권을 인수받았는데,⁷⁷⁾ 『삼부대전(三部大全)』만 총 260권 120책의 분량이었다.⁷⁸⁾ 이후 그 이듬해인 1427년(세종 9) 7월 경상도 감사가 새로 간행한 『성리대전』을 바치었다.⁷⁹⁾ 그런데 그 저본이 1419년

72) 『世宗實錄』 6년(1424) 2월 14일.

73) 송일기의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에서는, 이 大學大全 을 太宗이 설치한 鑄字所에서 주조한 庚子字로 인출한 庚子字本이라고 하였다.(송일기,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48卷 第1號(2014), 105쪽.) 한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貴0237-2】)과奎章閣 한국학연구원(【一簣古貴 181.1H65nb】, 홈페이지상에는 간행연대가 1420년과 1440년으로 두 가지로 작성되어 있음)에는 1420년(世宗 2)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庚子字本 論語集註大全이 소장되어 있는데, 판식은 ‘四周雙邊 半郭,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內向黑魚尾’이다.

1424년(世宗 6) 2월 鑄字所에서 인출된 大學大全이 있었다는 기록과 현재 庚子字本 論語集註大全이 전해지는 것을 감안해 볼 때, 書傳大全도 이 시기에 庚子字本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4) 『世宗實錄』 7년(1425) 5월 25일.

75) 『世宗實錄』 7년(1425) 10월 15일; 『春亭集』 제12권 跋文

76) 『世宗實錄』 7년(1425) 11월 2일.

77) 『世宗實錄』 8년(1426) 11월 24일.

78) 송일기(2014), 앞의 논문, 101쪽.

(세종 1) 12월에 경녕군 이비를 통하여 수입된 본인지, 그것을 저본으로 간행된 한국본인지, 1426년 11월(세종 8)에 진헌사에 첨총제 김시우를 통하여 수입된 본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1427년(세종 9) 9월 경상도 감사에게 『대전』과 『역경』·『상서』·『춘추』를 보내니, 『성리대전』의 예에 의거하여 목판에 새기라고 명하였다.⁸⁰⁾ 잇달아 동년 10월 전라도 감사에게도 『대전』과 『시』·『춘추』를 보내니 전에 보낸 『성리대전』의 예를 따라 출판하라고 명하였다.⁸¹⁾ 1428년(세종 10) 1월 예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보고를 근거로, 사서대전의 간판과 보관 등에 대해서 건의하여 윤허하였는데⁸²⁾, 오경대전도 이러한 규정에 준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동년 5월 함길도 감사가 함길도 도내에 학사를 건축하고 경서를 간행하기를 건의하자 예조에서 행하게 하였고⁸³⁾, 동년 12월 『성리대전』과 경서대전을 간출(刊出)한 자들에게 차등이 있게 미곡을 내려 주는 등⁸⁴⁾, 세종이 사서오경대전의 간행을 진작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29년(세종 11) 2월 부원군 이직(李稷) 등 41인에게 『대전』·『역경』·『상서』·『춘추』 각 1벌씩을 하사하였는데⁸⁵⁾, 이 역시 소량 인쇄한 사서오경대전이었다.

드디어 10일이 지나서, 경상도 감사가 새로 새긴 『역경』·『상서』·『춘추』의 책판을 바치었으므로, 이것을 주자소에 내리도록 명하였다.⁸⁶⁾ 그리고 잇달아 다음달 3월 전라도 감사가 새로 새긴 『시경』과 『예기』의 책판을 바치었으므로, 주자소에 내려 보내도록 명하였다.⁸⁷⁾ 동년 4월 강원도 감사가 사서대전 50권을 인쇄하여 바치었으므로, 4권은 종학에 보내고 3권은 집현전에 보내었으며, 그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반사하도록 명하였다.⁸⁸⁾ 그리고 1430년(세종 12) 3월 충청도 감사가 『상서』 30건과

79) 『世宗實錄』 9년(1427) 7월 18일.

80) 『世宗實錄』 9년(1427) 9월 3일.

81) 『世宗實錄』 9년(1427) 10월 28일.

82) 『世宗實錄』 10년(1428) 1월 26일.

83) 『世宗實錄』 10년(1428) 5월 6일.

84) 『世宗實錄』 10년(1428) 12월 13일.

85) 『世宗實錄』 11년(1429) 2월 13일.

86) 『世宗實錄』 11년(1429) 2월 23일.

87) 『世宗實錄』 11년(1429) 3월 6일. 世宗代에 三道에 명하여 관각한 『三部大全』의 책판을 모두 鑄字所로 이관하게 하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經書를 간행·유통시켰다.(송일기(2014), 앞의 논문, 107쪽.)

『예기』 20권을 인쇄하여 바치었다.⁸⁹⁾ 그런데 1431년(世宗 13) 2월 좌부대언(左副代言) 윤수(尹粹)에게 주자(鑄字)로 인쇄한다면 널리 반포하지 못하므로, 『좌전』의 목판 간행을 명하였다.⁹⁰⁾ 이것을 볼 때에 각도에 목판 간행을 지시한 것은, 대량 보급을 위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 후 1432년(세종 14) 8월 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감사들은 반드시 계문하고 서책을 간행하라고 하였다.⁹¹⁾ 이를 볼 때, 당시 사서오경대전을 비롯한 필수 서책에 대한 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1433년(세종 15) 12월 자제들이 중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였으나, 대신 천추사(千秋使) 박안신(朴安臣)을 통하여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 1책, 『성리대전』 1책, 『통감강목』 2벌을 받았다.⁹²⁾ 그리고 1435년(세종 17) 6월 『시대전(詩大全)』을 종실과 정부·육조의 당상관과 문신 2품 이상과 여섯 승지에게 내려준 일이 있었는데⁹³⁾, 이때에 이미 사서오경대전의 대량 생산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동년 9월 『대학』·『중용』·『논어』·『맹자』·『시경』·『상서』·『예기』·『역경』·『춘추』·『성리대전』 각 2질과 소학 10질을 제주의 향교에 내려 주었으며⁹⁴⁾, 동년 10월 『성리대전』과 사서대전·오경대전을 각 고을에 보내며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여⁹⁵⁾, 대량 보급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량보급은 계속 행해져서, 1439년(세종 21) 10월 예조의 건의로, 함길도에 신설한 각 고을에 『시경』·『상서』·『춘추』를 보내게 하였다.⁹⁶⁾ 그리고 이듬해인 1440년(세종 22) 3월 함길도 도절제(都節制) 김종서(金宗瑞)가 올린 비변책(備邊策)을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의논하게 하여, 우선 각도에 있는 책판 중에서 집주(集注)·집석(輯釋)과 사서·시서(詩書)를 각각 1백 90권씩 인쇄하여 예조에 보내게 하여, 예조에서

88) 『世宗實錄』 11년(1429) 4월 22일.

89) 『世宗實錄』 12년(1430) 3월 20일.

90) 『世宗實錄』 13년(1431) 2월 28일.

91) 『世宗實錄』 14년(1432) 8월 3일.

92) 『世宗實錄』 15년(1433) 12월 13일.

93) 『世宗實錄』 17년(1435) 6월 1일.

94) 『世宗實錄』 17년(1435) 9월 21일.

95) 『世宗實錄』 17년(1435) 10월 25일.

96) 『世宗實錄』 21년(1439) 10월 28일.

인편으로 송부하도록 허락하였다.⁹⁷⁾ 그리고 1444년(세종 26) 청주향교에 대전(大全)과 경서를 보내주었다⁹⁸⁾

위와 같이 세종은 『서전대전』을 비롯한 사서오경대전을 국가적으로 수용하고 간행·유통하였으며, 이후 경서언해사업까지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신주소 계열의 『서전대전』이 조선시대 국가에서 공인된 주요 교재로 널리 보급되어, 현재까지 많은 수량이 전해지고 있다.

IV. 맺음말

동아시아 『상서』의 주요 주해서는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2체제로 되어 있다. 중국 당대에 경학의 통일을 위해 『상서정의』가 국가가 공인하는 주해서로 편찬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송대 주자의 제자인 채침이 『서집전』을 편찬하여 원대에 국가가 공인하는 주해서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당대 『상서정의』의 고주소 계열과 송대 『서집전』의 신주소 계열인 2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후 신주소 계열의 영향을 받은 명대 『서전대전』과 고주소 계열의 영향을 받은 청대 『상서주소』가 각기 계승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서』의 양대 주해서로서 널리 공인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삼국통일 전후로는 당대 『상서정의』를 수용하였고, 고려후기에는 송대 『서집전』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2체제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 명대 『서전대전』과 청대 『상서주소』를 수용하면서, 이전 시기부터 수용되어 당시까지 전해진 당대 『상서정의』(송대 『상서주소』)와 송대 『서집전』까지 더해져 이들 4가지가 모두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한국의 상서학(尙書學) 연구는 주로 신주소 계열 중 『서전대전』에만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전대전』의 주해가 채침의 대주(大注)와 송원(宋元) 제가의 세주(細注)의 형태인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대주만을 번역·연구하는데

97) 『世宗實錄』 22년(1440) 3월 5일.

98) 『世宗實錄』 26년(1444) 5월 1일.

치중되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본 『서전대전』 간인본들간에 문자상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선본(善本)으로 전해지는 송대 『서집전』과도 문자상 차이가 존재하기에, 현재 국내에서 교수학습하는 간인본이 정확히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간행·유통되어 문자상 실제 채침이 편찬한 원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서학 연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경학서 전체 연구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서』의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양상은 경학서 전체인 고주소 계열의 십삼경주소와 신주소 계열의 사서오경대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인 『상서』의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시대별 양상을 근거로, 경학서 전체의 2체제 계열에 관한 거시적 연구에 관심이 이루어져서, 현재 국내 경학 연구가 신주소의 대주로만 전개되는 한계에서 극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書集傳』, 『書傳大全』, 『尙書注疏』.
『徐居正, 徐四佳全集, 補遺, 崔文靖公碑銘』 등

2. 단행본

김동주, 『尙書正義』. 전통문화연구회, 2014.
葉德輝 著, 朴徹庠 譯, 『書林清話』. 푸른역사, 2011.
羅樹寶 著, 趙賢珠 譯, 『중국책의 역사』. 다른 생각, 2008.
林東錫, 『中國學術綱論』. 高麗苑, 1986.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 『儒教 經典과 經學』. 景仁文化社, 2002.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同和出版社, 1984.
何耿鏞 著, 장영백·조관희·김애영·박덕교·전영숙 譯, 『經學概說』. 청아출판사, 1992.

3. 논문

김유미, 「국내 주요 尙書類 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第70輯, 2017, 145-174쪽.
_____, 「『尙書』에 관한 문헌학적 고찰」. 『아시아연구』 21권 4호, 2018, 225-262쪽.
_____, 「『尙書』의 新注疏로서, 한국본 『書傳大全』 간인본들간의 서지학적 이동연구」. 『정신문화연구』 第150輯, 2018, 83-118쪽.
_____, 「해제」. 『尙書正義』, 전통문화연구회, 2013, 4-34쪽.
송일기, 「永藥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第48卷 第1號, 2014, 97-116쪽.
전재성, 「四書 정립 과정에 관한 연구」. 『陽明學』 제16호, 2006, 335-357쪽.
정인승, 「吏讀起原의 再考察」. 『이회승선생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57, 643-652쪽.

劉起鈺, 「尙書與群經版本綜述」. 『史學史研究』 第三期, 北京師範大學歷史學院史學研究所, 1982, 49-50쪽.
王春林, 「『書集傳』版本源流」. 『中國哲學史』 第2期, 中國人民大學哲學系, 2010, 101-104쪽.

국 문 초 록

동아시아에서 경학은 본래 고대 공문서로서, 사관으로부터 전해진 『시(詩)』·『서(書)』·『예(禮)』·『악(樂)』·『역(易)』 등의 문헌을 춘추시대 공자가 정리·편찬하면서, 후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 경학은 중국 당대에 오경정의(五經正義)를 근간으로 하여 송대에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로 고주소(古注疏)가 성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주자집주(朱子集注)를 편찬하여 명대에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으로 신주소(新注疏)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학의 2체제의 배경에서, 『상서』는 당대 『상서정의』·송대 『서집전』·명대 『서전대전』·청대 『상서주소』로 각기 이어지면서, 고주소와 신주소의 2체제로 구축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아, 삼국통일 전후로는 당대 『상서정의』를 수용하였고, 고려후기에는 송대 『서집전』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주소 계열과 신주소 계열의 2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후 조선시대 명대 『서전대전』과 청대 『상서주소』를 수용하면서, 이전 시기부터 수용되어 당시까지 전해진 당대 『상서정의』(송대 『상서주소』)와 송대 『서집전』까지 더해져 이들 4가지가 모두 병존하게 되었다.

투고일 2018. 6. 20.

심사일 2018. 7. 4.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상서정의(尙書正義, Sangseojeongui), 서집전(書集傳, Seojibjeon), 서전대전(書傳大全, Sejeondaejeon), 상서주소(尙書注疏, Sangseojuso)

Abstracts

A Study on Old Type and New Type of Commentaries of Sangseo(尙書).

Kim, Yu-mi

In East Asia,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經學) has been essentially concerned with ancient official documents. The documents written by ancient historiographers, such as Si (詩), Seo (書), Ye (禮), Ak (樂), and Yeok (易), became a historical heritage of everlasting values after they were compiled by Confucius.

There have been two types of commentaries on Confucian classics in East Asia since the old type (十三經注疏, Sibsamgyeongjuso) and the new type (四書五經, Saseoogyong) were made in Tang Dynasty and Song Dynasty respectively in China. This has influenced Korea as well.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commentaries on Sangseo (尙書) have been done since Sangseojeongui (尙書正義) of the old type in the ancient times, Seojibjeon (書集傳) of the new type in the medieval times, and Sejeondaejeon (書傳大全) of the new type and Sangseojuso (尙書注疏) of the old type in the modern times were officially adopted in Korea.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old and the new type of commentaries on Sangseo.